

신임 총장으로서 1개월, 'QAIST'의 현 주소를 보다 취임 1개월 맞은 이광형 총장의 기자간담회

글 | 심재율 전 조선일보 기자 /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 저자

새로운 자리에 적응해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에 한 달은 무척이나 애매한 시간이다. 이전에 진행된 일과 조직구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비전을 실현할 준비를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등교육기관의 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이라면 더 그렇다. 그렇다고 아무 변화도 없이 보내기에는 긴 시간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4월 8일 진행된 이광형 KAIST 총장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는 이 총장에게 제법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이다.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무언가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임기를 가늠할 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총장은 이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KAIST의 미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는 데 성공했다.

한층 구체화된 ‘새로운 KAIST’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는 이 총장의 브리핑으로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취임식 때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총장으로서 한 달 간의 고민을 담은 듯, KAIST의 미래상을 손에 잡힐 듯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제시했다.

이 총장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이었다. 이 총장은 현재 KAIST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느라 폭넓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학부생의 수업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KAIST는 그간 일류 대학과 연구기관을 따라잡기 위해 전공분야의 소양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다가오는 포스트 AI 시대에는 한계이자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읽어내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참신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려면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연구실당 최소 한 명의 외국인을 뒤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한편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사례처럼 학내에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연구실 밖의 세상과 융화되도록 촉진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렇게 축적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KAIST에 기부금을 대거 유치해서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한편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취임식 때보다 한층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1랩 1벤처’를 목표로 “부작용이 생길 만큼 창업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10년 뒤 KAIST가 1,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입을 얻어 재정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당연했던 1990년대, 비밀리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지원한 이 총장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다. 이처럼 KAIST가 기술과 인재를 공급하며 벤처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함으로써 대전-세종-오송을 잇는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망이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낼 50년을 준비한다

이 총장이 제시한 KAIST의 미래가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라 그럴까, 20여 분 간의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학전문기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창업 지원과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우선 1랩 1벤처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창업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창업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성공을 위한 ‘모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창업 시도가 많아질수록 성공사례도 많아지기 마련이고 부실한 창업은 시장에서 걸러질 테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사례를 신중하게 추구하기보다 최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KAIST는 교육과 연구, 산업의 융합을 추구해 왔다. 사진은 다양한 융합연구팀이 입주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있는 KI 빌딩의 내부로, 서로 다른 연구실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이 총장은 폭넓은 시야와 융합이야말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KAIST는 국내외 산업전에 참여하여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의 KAIST 부스를 둘러보는 이광형 총장. 이 총장은 KAIST를 중심으로 견고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과학에는 때때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포스트 AI 시대에는 더 그렇다. 대전방송(TJB)에 출연한 후보처럼, KAIST는 문화 예술 분야와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내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 총장의 관점은 연구 환경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어진다. 창업 시도가 활발해지려면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공 공부를 10% 줄인다면 연구 실적이 부족해지지 않겠냐는 질문이다. 이 총장은 학교의 구성원 중 연구의 중심축이 교수와 박사후 연구원이라면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전공 부담을 줄임으로써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을 두텁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전공에 치중하는 이유가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 때문인데, 해외 일류 대학처럼 박사후 연구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소양을 충실하게 쌓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KAIST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이 있었다. 특히 대전-세종-오송 트라이앵글 구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이 총장은 그간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많았지만 지방에서 신기술을 이용해 창업이 활성화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기술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전-세종-오송 지역은 인력과 기술, 지원시스템을 고루 갖춰 신기술 산업생태계가 자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결합시켜 융합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힘이 약해 창업 동력이 약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장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공급하는 KAIST가 학교 내에서의 창업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지역 사회와 견고하게 협력한다면 경쟁력이 높은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일단 성공 사례가 쌓이면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유능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기자간담회는 총장으로서 임기 내 목표에 대한 질문으로 막을 내렸다. 이 총장은 총장으로서 내놓은 ‘새로운 KAIST’ 비전은 결코 4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임기 중 성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임 총장으로서 지금 추진하려는 변화는 KAIST가 향후 50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KAIST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총장이 제시한 비전은 취임식 때보다 한층 분명해졌다. 다양한 질문에 분명한 확신으로 응한 이 총장의 답변은 앞으로 변화할 KAIST를 기대하게 했다. 이 총장은 취임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며 KAIST의 또 다른 변신을 예고했다. “밤하늘의 별이 서로 비슷하면 봐 주는 사람이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비슷하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KAIST는 독특한 빛으로 밤하늘을 빛내는 고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년 후에는 KAIST가 MIT에 버금가는 대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KAISTian



+ 플라스마 제트 기초 기술 개발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연구팀이 기체를 이온화시킨 플라스마가 기체와 액체 사이 경계면의 유체역학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자연에 존재하는 약하게 이온화된 기체와 액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플라스마 제트를 활용하는 기초과학·응용 분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지혈제 작동원리 규명해 혈액 응고장애 극복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 연구팀이 흉합 모사 접착성 지혈제를 이용해 혈액 응고 장애 환자를 효과적으로 지혈하는 데 성공했다. 이해신 교수는 수년 전 세계 최초로 흉합 모사 접착물질을 의료용 지혈 물질로 상용화시킨 바 있다. 그는 이노테라피와 수년간의 추가적인 분자기작 연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이 흉합 모사 접착성 지혈제의 지혈 성능을 밝혔다.

>> 더보기



+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한 발짝 다가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식 교수와 서울대병원 혈액암센터 홍준식 교수 공동 연구팀이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 화학 치료제 중 하나인 데시타빈의 인체 내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별로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들의 치료에 드는 경제적 지출과 시간적 소비 또한 확연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원심력을 이용한 미세 섬유 대량생산 공정 개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도현 교수 연구팀이 원심력을 이용한 새로운 마이크로 및 나노 섬유 대량생산 공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기존의 원심방사 공정을 발전시켜 멀티 원심방사 시스템을 고안해 다양한 고분자 마이크로 및 나노 섬유를 생산했다. 이 기술은 섬유의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섬유가 하나의 필터에 함유된 복합 필터 제조도 가능하게 해 폭넓은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이상엽 특훈교수, 미국 산업미생물생명공학회 찰스 스콧상 아시아인 최초 수상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연구부총장)가 2021년도 미국 산업미생물생명공학회(SIMB)가 수여하는 찰스 스콧상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다. 찰스 스콧상은 1995년에 시상하기 시작한 권위 있는 상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연료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간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만 수상자가 나왔다.

>> 더보기



+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 'SHE DID IT' 캠페인 인터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성과학인 프로젝트 'SHE DID IT' 캠페인에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가 2021년 캠페인 인물로 선정, 각종 매체에 인터뷰가 실렸다. 이 교수는 2015년 부임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최초의 여성교수로서 2017년 세계경제포럼 젊은 과학자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있다.

>> 더보기



+ 전산학부 김대화 석사과정, ACM CHI 2021 학회 Honorable Mention Award 수상

KAIST 전산학부 이기혁 교수 연구팀이 가상환경에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 제스처를 정밀하게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팀 소속 김대화 석사과정 학생은 제1저자로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ACM CHI 2021에서 전체 논문 중 상위 5%의 논문에 수여되는 Honorable Mention Award를 수상했다.

>> 더보기



+ 화학과 김상규 교수,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

KAIST 화학과(자연과학연구소장) 김상규 교수가 4월 21일~2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학술상(Excellence Academic Award)을 수상했다. 대한화학회는 매년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1인을 선발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비단열동역학(Nonadiabatic Dynamics) 중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자세한 전모를 분자수준에서 기술한 점을 인정받았다.

>> 더보기



+ 남택진 교수팀, 레드닷 어워드 2021 대상 수상

남택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팀이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1'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대상(Best of the Best Award)을 받았다. 수상작은 남 교수팀이 개발한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용 이동형 감염병동'이다.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손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1'에서도 제품·실내건축·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 등 총 4개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더보기



+ KAIST-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체결

KAIST가 글로벌 벤처투자기업 요즈마그룹(회장 이갈 에를리히)과 4월 8일 공동기술 사업화 및 인재 확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KAIST 관련 기업에 대한 요즈마그룹의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창업벤처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한 요즈마펀드에서 출발했다.

>> 더보기



+ 방방프로젝트 두 번째, Butterfly 커버 영상 공개

'KAIST 밴드'가 모던 록 밴드 러브홀릭스의 곡 'Butterfly'를 커버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대학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방방 프로젝트'의 두 번째 기획으로 제작됐다. '방방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음악을 주는 위로와 힘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자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뒤 편집 기술로 한데 모은 '온라인 합주' 형식으로 영상을 완성했다.

>> 더보기